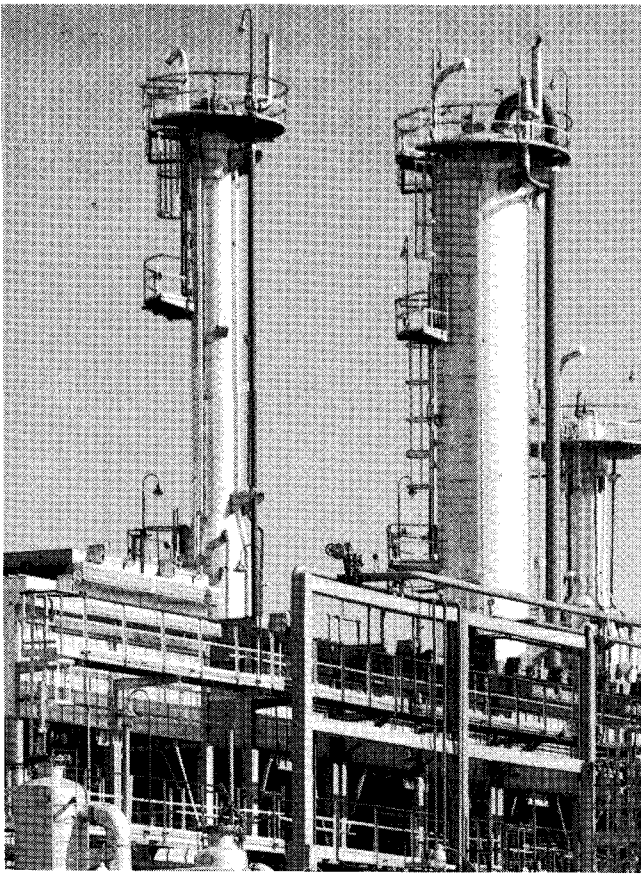


'90년 석유시장의 주요 결정요인



금년들어 며칠새 유가는 \$1~2의 폭등세를 나타내어 OPEC 평균유가는 \$20에 근접하고 있다. 이같은 유가급등은 '89년 11월말부터 계속된 유럽 북미지역의 한파 지속으로 난방유 등 석유수요가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정유공장의 잇달은 조업 장애로 가솔린 및 난방유 공급압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가강세는 지속될 터라 유가의 급격한 하락세는 의문시 되고 있다.

금년들어 며칠새 유가는 \$1~2의 폭등세를 나타내어 OPEC 평균유가는 \$20에 근접하고 있다. 이같은 유가급등은 지난 11월말부터 계속된 유럽 북미지역의 한파지속으로 난방유 등 석유수요가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정유공장의 잇달은 조업장애로 가솔린 및 난방유 공급압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xon사 루이지애나 정유소(정제능력 45.5만b/d)가 작년 12월 24일부터 가동중단에 들어간데 뒤이어 지난 주말에는 Chevron, Sun Co 등의 정유시설이 한파와 사고로 생산장애(공급감축규모 약 20만b/d)상태에 돌입함으로써 미국 전체의 정유소 가동율은 79.3%로 전주 대비 10%포인트이상 급락하였다. 또한 작년 12월중 24백만b/d에 달했던 OPEC 원유생산도 UAE, 쿠웨이트 등의 감산에 힘입어 1백만b/d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유가강세의 배경으로 되어 있다.

유가추이는 제 86 차 OPEC 총회(89. 11/25~28)이후 일반적 이었던 유가하락(OPEC 평균유가 \$17이 90년 1/4분기중 \$15까지 하락가능) 예상과 역행되는 움직임이다. 당시의 석유전문가들 예측에 의하면 금년 1/4분기중 대 OPEC 원유수요는 21.5백만 b/d내외로써 100~150만b/d의 공급과잉이 발생되어 유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아직도 유효하다. 즉, 최근의 한파로 인한 수요증대효과는 20만b/d(1/4분기)에 불과하여 구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며 오히려 OPEC의 감산 노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현재의 유가강세는 거래업자의 가격조작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급락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초의 유가 초강세는 한파·미국정유소 조업장애의 영향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문시된다. 오히려 또다른 사고(예컨대 북해유전사고 또는 소련의 공급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가강세의 지속기간은 더욱 연장될 수 있다.

작년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석유시장 움직임은 향후 시장전망에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석유수출국-석유소비국, 또 OPEC-비OPEC 간에 유지되어 오던 안정된 균형이 석유수출국 쪽으로 그것도 OPEC의 역할증대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가자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석유시장이 수급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보다 다른 요인(심리적 요인, 선물시장의 투기 등)에 더욱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급구조적 분석을 근거로 한 다수기관의 실적치와 큰 괴리가 발생하곤 하였다. 더욱이 석유수급통계상의 혼란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는데 예컨대 IEA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통계는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바 있으며, 아직도 소비·재고 통계에 대한 논란여지가 남아있어 향후 시장파악

**현재 일련의 석유시장 움직임은
향후 전망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석유수출국-석유소비국, OPEC-비OPEC간에
유지되어 오던 균형이 석유수출국 쪽으로
그것도 OPEC의
역할증대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금년도는 OPEC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는 말썽의 원인이 되어 왔던 쿼터문제가 대OPEC 원유수요증가에 따라 저절로 해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PEC 회원국간의 합리적 의 사결정과 상호협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 인도네시아가 자국쿼터 동결을 스스로 결정한 것, 쿠웨이트가 생산실적보다 50만b/d나 낮은 150만b/d 쿼터를 수락한 것, 사우디·이라크 등 잉여생산보유국이 적절하게 생산을 자제하고 있는 것, 베네주엘라가 콘덴세이트에 관련된 OPEC 협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 이란의 태도가 사우디 등에 협조적인 것, UAE의 생산감축약속이 이행될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 유일한 자유생산국인 UAE마저 금년 5월 또는 11월 총회에서 쿼터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OPEC은 금년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9월경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담을 계기로 OPEC의 장기전략과 결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OPEC내 주요 흐름은 비OPEC과의 시장점유율 경쟁은 비OPEC측의 생산능력제약으로 끝났으며, OPEC내 증산경쟁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OPEC정책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시가격유지정책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총회에서 OPEC의 \$18/b 최저기준가격(minimum reference price) 선언은 금년도 가격정책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86년 12월 이래 공시가격을 도입한 OPEC은 \$18/b를 목표유가→기준유가('89년 6월)→최저기준유가('89년 11월)로 계속 상향시켜 왔다.

금년도 석유시장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강세를 나타내는 중에 불확실 요인의 증대로 가격변동폭은 커질 것이다(OPEC평균유가 \$17~18, 가격변동범위 \$15~20, 불확실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① 비OPEC의 생산규모 ② 에너지부문의 주요 사건·사고 ③ 소련의 생산 또는 수출 장애 ④ 동구 개혁에 따른 석유소비 증가 ⑤ 일부 비OPEC 산유국의 OPEC에 대한 감산협력 움직임등이 거론되고 있다.